



이슈를 통해 바라본 한중 관계 칼럼

제4차 산업혁명과 중국

정유년을 맞이하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기도 드물다.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하면서 경제 및 정치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인 "Speed Factory"는 더 이상 해외에서 대량생산에 기반한 비용절감이 의미없게 되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에 있던 생산기지를 자국 내로 옮겨와 시장의 빠른 요구에 대처하는 대량맞춤화(masscustomization)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국내우선에 기반한 보호무역 기조는 더 이상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라는 역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EU 탈퇴만 하더라도 자국경제의 보호가 우선시 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처럼 반도체, 조선, 자동차와 같이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장치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매우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생산기지이자 중간재 수출의 가장 큰 교역국이었던 중국의 역할을 다시금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노동력만을 활용하기 위한 생산기지의 중국이전보다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중국 진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제빵, 화장품, 드라마 등은 제품자체보다는 그 제품생산에 필요한 문화, 전통, 인력 등이 차별화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중국은 우리와 같은 동양권 문화로서 한국의 진출은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자원부족으로 수출주도형의 경제를 통해 발전하였다면, 이제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융성을 해외에서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이다. 활용하기에는 13억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한류열풍처럼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에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며.....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장 / 중국최고전문가과정 원장 홍 태 호

중국의 과학발전과 한국

중국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게 되는 관광 명소가 있다. 그곳은 자금성이나 이화원 같은 명승고적이 아닌 바로 중국의 '짜퉁 시장'이다. 중국의 이미지 중 하나가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국가이기에 여전히 '중국'하면 따라 붙는 수식어 중의 하나가 '짜퉁 천국'이다. 산적들이 숨어사는 곳을 일컫는 '산자이(山寨)'라는 말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단어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현재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역으로 증명해주는 말이 되었다. 단순히 옷, 가방을 넘어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같은 전자 제품들을 완벽하게 모방해 파는 수준이 되었고, 한 발 더 나아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까지 이루어냈다. 우리가 우습게보고 저가(低價)라며 거들떠보지 않던 중국 제품들이 오히려 소위 '대박'을 터트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최첨단 항공 우주 강국의 기술적 면모를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 전자 제품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준에 다다른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다.

중국의 이러한 성과는 단기적인 투자나 정책의 결과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에 근거해 이룩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1994년 중국과학원 주도로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한 '백인계획(百人计划)'을 시작하였고, 2008년 '천인계획(千人计划)', 2012년 '만인계획(万人计划)'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계획은 2014년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의 구호아래 뉴 노멀(新常态)시대를 이끌 국가 전략으로 제시되었고, 2015년에는 '인터넷+(互联网+)'와 '중국 제조 2025(中国制造2025)' 등의 계획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학 혁신과 제조기술 강국 실현의 목표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의지를 증명하듯, 중국은 8년 연속 세계 1위의 R&D 인력을 보유하는 국가, EU보다 규모가 큰 세계 2위의 R&D투자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과학원(CAS)이 2016년 세계 네이처 지수(Global NatureIndex)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2015년도에는 노벨상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생물, 의학 부문은 물론 실리콘밸리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브레이크스루 상(Breakthrough Prize)' 기초물리학 분야에서도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우리는 지금껏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짜퉁의 나라'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과학기술 대국인 중국의 '진면목'을 보아야 한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어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었다'는 말을 되새기며 거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전략을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떼어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 강국이며 지정학적 운명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국력에 주눅 들어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 없고, 민족적인 감정에 얽매어 백안시 할 필요도 없다. 그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실리를 취하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중국을 찾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이다.

부산대학교 국제정치학 김상규 박사

연구소 소식

1. 『CHINA연구』 제19권 2호 발행 (2016.08.31)

◇ 한국어논문 : 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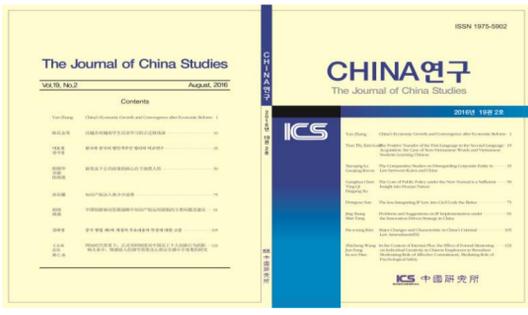
- ▶ 한국과 중국의 법인격부인 법리의 비교연구 (여효청, 권기정)
- ▶ 중국 형법 제9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한 고찰 (김하영)

◇ 영어논문 : 1편

- ▶ China's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after Economic Reform (Yan Zhang)

◇ 중국어논문 : 5편

- ▶ 汉越音对越南学生汉语学习的正迁移浅谈 (陈氏金鸾)
- ▶ 新常态下公共政策的核心在于洞悉人性 (陈刚华, 齐颖, 徐海港)
- ▶ 知识产权法入典少少益善 (孙东耀)
- ▶ 中国创新驱动发展战略中知识产权运用面临的主要问题及建议 (相靖, 唐满)
- ▶ 互联网加时代背景下:正式导师制度对中国员工个人创新行为的影响关系中:情感投入的调节效果及心理安全感中介效果的研究 (王志成, 封筠, 韩仁洙)



2. 중국최고전문가과정(CSP) 제11기 수료식

- ▣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19:00
- ▣ 장 소 :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
- ▣ 내 용
 - 개식사: 중국연구소장 / 중국최고전문가과정 원장 홍태호
 - 축 사: 부산대학교 총장 전호환



3. 중국최고전문가과정(CSP) 제11기 국내연수

- ▣ 일 시 : 2016년 10월 22일(토)
- ▣ 장 소 : KT 거제수련관 / 장사도 해상공원 등 거제도 일원
- ▣ 참 석 자 : 제 11기 CSP 과정생, 연구소 인원
- ▣ 내 용 : 거제도 대포항에서 승선 후 장사도 해상공원 관광



공지사항

1. 『CHINA연구』 제20권 1호 원고모집

- ◇ 원고마감 : 2017년 2월 15일까지(2017년 3월 출간)
- ◇ 주 제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법제도, 역사 등 중국에 관련된 모든 방면
- ◇ 투고분야 : 논문, 說林, 서평, 연구동향
- ◇ 투고자격 : 교수,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자
- ◇ 투고방식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이용
- ◇ 논 문 : - A4 원고지 10매 이상
- 영문 요약문(10줄 이상)
- 영문 Key word 5개 이상

2. 중국최고전문가과정(CSP) 제12기 모집

- ◇ 모집대상 : 중국진출계획자 및 사업자, 대학의 중국관련 업무담당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국 관련 업무 담당자, 중국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인사 및 관계자
-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 학사일정 : 2017년 3월 ~ 2017년 12월(1년 과정)
- ◇ 수업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10시(주1회)

3. 중국연구소 홈페이지 새로 오픈

- 중국연구소 홈페이지 : <https://pnchinese.pusan.ac.kr>
- CHINA연구 홈페이지 : <http://jchinastudy.net>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 <http://submission.jchinastudy.net>
- 중국최고전문가과정 블로그 : <http://blog.naver.com/pnucsp>

4. 중국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중국연구소에서는 부산대학교에 유학 온 우수한 중국학생의 지원과 부산대학교생의 중국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